



네번째 이야기

목마름이 있는 땅, 탄자니아

[2020 선교사 사역현장 ①]

안녕하세요! BEE 가족 여러분! 2016년 11월 파송 받고 현재 케냐 Kajiado에 거주하며 케냐 엘도렛, 이튼, 나이로비와 탄자니아에서 사역하고 있는 신동준 선교사입니다. 여러분의 기도와 후원으로 저희 가정 흥지연 선교사, 요한, 온유, 하연 모두가 잘 지내고 있습니다. 요즘은 가끔 자녀들이 성장해 가는 것을 보면서 앞으로 2년, 3년, 5년 후면 모두 가정의 동지를 떠나 각자 자신에게 주어진 소명을 이루며 살아갈 텐데 하는 생각을 하면 괜스레 마음이 짝해지기도 합니다.



선교사로서 처음 20개월은 서아프리카 가나에서 어학훈련과 현지 적응훈련을 받았고 지금은 탄자니아 코디네이터를 맡아 사역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지난 시간들을 되돌아보면 참 큰 은혜를 많이 받았다는 생각이 듭니다. 특히, 서아프리카 지부장님이신 김용달 선교사님의 밑도 있는 선교전략을 현장에서 배울 수 있었고, 동아프리카에 와서는 지부장님이신 박은형 선교사님을 통해 속도 있는 선교전략을 현장에서 배울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외국의 어느 선교단 체처럼 2년의 어학훈련과 5년의 현장훈련을 받은 것

은 아니었지만, 그에 준한 훈련을 받을 수 있게 되어서 참 감사했습니다. 선교현장을 다니다 보면 하나님께서 저의 지난 20여 년의 온누리 교회 성도로서의 생활, 20년의 군 생활, 신학교, 전도사 생활, 본부훈련 등 지나온 모든 과정들이 유익하지 않은 것 하나 없이 모두 다 사용하게 하신다는 것을 순간순간 깨닫습니다.



때론 훈련과정이 길다 보니 가끔 이런 생각이 들 때도 있었습니다. '지금 내가 무엇을 하고 있나' 하고요. 그럴 때면 예수님의 삶이 생각납니다. 가정에서 30년, 공생애 3년, 어쩌면 저는 선교사로서 아직도 준비되지 못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사무총장님이신 조문상 선교사님의 콜링으로 BEE Korea에 들어와 여러 인도자님들의 지도를 받으며 현장사역을 할 때 느꼈던 것은 선교에 있어서 선교사 본인의 영성이 다른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모든 분들이 알고 계시는 것처럼 BEE의 선교방식은 방법론적으로는 단연 세계 최고입니다. 이는 이미 여러 선교현장에서 증명되어 왔습니다. 우리의 필요가 아닌 현지인들의 필요에 맞게 BEE 선교사들은 자신들의 안위도 뒤로 하고 달려가고 있습니다. 가끔은 BEE의 선배님들이 천재가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 정도입니다. 그러나 이런 부흥의 비결이 전략만으로 이루어진 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BEE의 제자훈련 사역의 열매가 선교사 본인 그리고 현지 선교사들의 섬김을 통해 나타났기 때문이라는 결론을 얻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더욱 선배님들을 존경하게 됩니다.



탄자니아의 국토는 한반도의 4배이고 잠재력이 엄청난 곳입니다. 아직 케냐보다는 발전이 늦지만 그에 반해 말씀에 더욱 순수하게 목말라하고 있습니다. 이곳에서 오래 사신 교포분이 전해 주신 말씀이, 이곳은 땅이나 사람들의 마음, 영혼이 다 비어 있다고 합니다. 정말 주요 도시를 이동하려면 버스로 하루가 걸립니다. 그러나 그런 수고에 비해 BEE 사역은 붓기만 하면 번지는 느낌입니다. 이곳에서 내륙 쪽으로 또는 주변 국가로 나가면 열악하다 못해 거의 막장 수준으로 가는 나라들이 많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슬람과 토속신앙과의 혼합주의에 맞서 탄자니아가 말씀사역의 중심이 될 수 있다는 소망을 가진 저에게는 BEE 사역이 더욱 소중하게 다가옵니다.

한편으로는 이런 부흥의 시기에 흑사라도 저의 영성과 BEE의 현지 사역자들이 하나님 나라의 실재를 그들에게 올바르게 보여주고 있는지 더욱 조심스러워 걱정이 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기도가 더욱 절실해집니다.

BEE 가족 여러분! 목마름의 땅, 비어 있는 땅, 탄자니아로 오십시오. 그리고 삶의 기도를 함께 드리기를 원합니다. 성령의 단비가 탄자니아의 갈급한 심령 가운데 깊이깊이 내려지길 소망하며.....

***2월 초 소식입니다. 지금은 코로나19 점염 및 확산으로 인해 예배와 사역이 중단된 상황입니다.**

[글: 신동준, 정라: 김종영, 편집: 최선]

BEE의 보석찾기

4. 김경은 권사

*** 이번 주 보석 찾기 주인공입니다.**



고등학교 시절 수련회에서 성령 체험을 하고 구원의 은혜와 기쁨 속에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했습니다. 2009년 BEE를 시작한 이후 말씀 안에서 충성된 자를 세우는 것이 저의 비전이 되었습니다.

2020 본부, 일본, 몽골 기도테이블 팀장을 맡았는데 다양한 분들과 교제하면서 그분들의 장점을 보고 배울 것이 많아서 늘 행복합니다. 못된 자아와 이기심으로 힘들 때에도 팀원들 속에서 섬김의 본을 보고 새롭게 섬김을 다짐하곤 합니다.

온누리 양재 서초C 공동체 기쁨 3순을 섬기고 있으며 가족은 남편과 아들, 며느리, 손자가 있습니다.

*** BEE 가족 모두가 하나님의 보석입니다!**

BEE 소식

- 2020년 하나님의 “준비하라”의 음성에 따라 삶의 모든 영역에서 준비하고 하나님과 깊은 만남이 있기를 기도합니다.
“그러므로 이스라엘아, 내가 이와 같이 네게 행하리라. 내가 이것을 네게 행하리니 이스라엘아, 네 하나님 만나기를 준비하라(암4:12).”
- 코로나19 감염 및 확산 예방으로 잠정적으로 BEE 기도모임이 중단되고, 정부 및 교회의 방침에 따라 2020 상반기 온비아 과정이 취소되었지만 매일 온라인으로 전달되는 선교지 기도제목과 성경통독을 통해 하나님 앞에 더욱 겸비해 나아가며 기도하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 전세계적으로 코로나19 확산으로 인해 선교지 곳곳마다 예배와 사역이 중단된 상황입니다. 열방이 주님의 긍휼하심을 바라며 회개와 기도의 영으로 하나님께 간구할 때 하나님의 치유의 손이 열방에 임함을 선포하며 기도의 자리로 나아갑시다.